태국 불교도, '실종 소년' 무사 귀환 발원

7월 2일 '기적 생존' 확인… 동굴 지킨 스님들 '주목'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州)의 한 동굴에 들어간 뒤 실종됐던 소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타까움이 더해가는 가운데, 이들을 위해 동굴 앞을 지키고 있는 태국 불교도들의 절실한 기도가 주목받고 있다. 실종 소년들은 7월 2일(현지시간)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이 확인됐지만 아직 구출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소년들이 실종된 동굴 앞에서 스님들은 몇 날 며칠 기도했다"며 "수색대의 구조 기술과 불교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란히 행해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종자들은 태국의 치앙라이주(州)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로,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 종료 후 관광 목적으로 동굴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다. 당국은 이들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수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동굴 입구에서는 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 가방, 축구화 등이 발견돼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국은 즉각 해군 잠수대원 및 경찰, 군인, 국경수비대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본격 수색을 시작, 2일 실종된 13명 모두의 생존을 확인했다. 이들은 동굴 내 가장 큰 공간인 '파타야 비치' 인근서 발견됐다.

갑작스런 폭우로 동굴 고립

군경 1000명 투입해 수색

실종 열흘 만에 생존 확인

스님들 동굴 앞 떠나지 않고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 전해

그동안 태국 불교도들은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 것으로 전해진다. 스님들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법문과 명상을 진행하는 한편, 단주를 나눠주며 위로를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들이 실종된 후에도)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동안 스님들의 기도가 빛을 발했다"며 "약 5마일 길이의 동굴 수위가 낮아졌다. 흙탕물이 빠져나올수록 내부 수질이 맑아지며 잠수부의 수색이 원활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교 국가인 태국은 여러 측면에서 종교적 영성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도하는 불교도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동굴 앞에서 상주해 기도하는 승려들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불교도들이 합동 기도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왕차이 티엔시리(Wanchai Thiensiri) 씨는 자신을 종교 회의론자로 밝히면서도 "이곳의 모든 사람이 종교의 힘을 믿게 됐다"며 "기청제(祈請祭, 비가 그치길 바라는 기도)를 지내며 스님이 내게 준 이 부적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망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 법당도 설치됐다. 당국은 직접 나서 기도 공간을 꾸리고 향을 피우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다.



태국 스님들이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동굴 실종' 소년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백인남성 훼불' … 기독교 극단주의 우려

미국 종교지도자 40인 성명, '증오범죄 규탄' 촉구

워싱턴서 백인 남성이 베트남 사원 불상을 고의로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종교계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 로어'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등 종교 지도자 40명이 워싱턴 타코마 카운티 소재 베트남 사찰서 있었던 공공기물 파손 사건을 비판하고, 기독교 극단주의를 근절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6월 29일 보도했다.

해당 성명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타코마 카운티 사찰 훼불사건'서 야기됐다. 현지 지역뉴스에 따르면 타코마에 거주하는 제레미 클라크(Jereme Clarke)란 남성은 '차 폭 웨 명상센터'에 침입해 불상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직전 사찰 관계자에 "악마 숭배자!"라고 소리쳤다는 점에서 그가 기독교 신자임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5일 뒤인 25일, 미국 전역 40명의 종교지도자들은 공개서한을 냈다. 이들은 "클라크가 기독교 신앙을 인종차별적 · 반 불교적 증오범죄에 이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독교 극단주의의 한 현상인 훼불사건이 한 사람(제레미 클라크)의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들 사이에 종교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미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들은 기독교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독교계는 이번 타코마 사건을 통해 기독교 극단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 훼불행위는 기독교에 반하는 일임을 알리고,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현장에 있던 스님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화면. 기독교 신자 제레미 클라크가 사찰관계자들에 "악마숭배자"라 외치며 불상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화면제공=뉴스트리뷴

스마트스피커로 만나는 '3분 법문'

네이버 일본법인 'LINE'

7월 하순부터 서비스

방황 · 슬픔 · 성냄 기분에

잔잔한 법문들 흘러나와

앞으로 일본에서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현재 기분에 따른 스님들의 짧은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돼 눈길을 끈다.

일본 언론매체 PRTIMES는 6월 28일 네이버 일본법인 '라인(LINE)'이 7월 하순부터 스마트스피커 '라인 클로바'를 통해 서비스하는 '3분 법화'를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스마트스피커에 제공되는 3분 법화는 ㈜요리소우가 설립한 '스님편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다.

3분 법화에서는 스님 4명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방황 · 슬픔 · 성냄 각 3가지 감정에 맞춘 법문이 제공되며, 총 12가지의 짧은 법문이 담겼다. 클로바 스피커 사용자가 "클로바, 3분 법화 열어줘"라고 말을 걸면, 해당 기능이 작동해 현재 사용자의 기분을 선택해줄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방황'을 고른다면, 스님 4명이 남긴 방황과 관련된 법문을 무작위로 들을 수 있다. 3분 법화에는 이토우(조동종 천왕산 서암사) · 시바타(정토종 무량암) · 미우라(일련종 정온결사) · 카사(정토진종 조정원) 스님이 참여했다.

라인 클로바는 이뿐만 아니라 장례나 법회 때 의식 집전을 맡을 스님을 찾아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는 2015년 말 '아마존 재팬'서 스님 대여 서비스인 '마이테라'가 선보인지 2년 반 만이다.

스피커 사용자가 "클로바, 스님을 불러줘"라고 요청하면 해당 기능이 작동된다. 장례 · 제사 · 개명(법명)수여 3가지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콜센터를 통해 스님이 섭외된다. 이와 관련해 라인은 해당 기능의 배포를 기념하면서 클로바 스피커 전용 커버 2종을 제작했다. 디자인은 일본불교 복식을 따랐으며, 일반 판매는 검토 중이다.

연구소 측은 "이 서비스는 스님을 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절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간편하게 스님을 부를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획을 마련해 스님들의 활동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리소우는 2009년 리뷰사이트 운영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후 장례식 준비 지원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2013년 독자적인 전국단위 정액제 장례서비스와 스님 섭외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제휴 장례회사 900곳, 제휴 스님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스마트스피커인 클로바에 일본불교 복식을 본떠 만든 커버를 씌운 모습. 사진출처=PRTIMES



3분 법화에 참여한 스님들. 왼쪽부터 이토우 · 시바타 · 미우라 · 카사 스님.

'악질 죄수' 불교 개종 후 '새 사람' 돼

찰스 브론슨, 불교 공부 매진 및 채식 '화제'

영국의 한 악명 높은 죄수가 불교로 개종한 후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밝혀 화제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도 유명한 죄수 찰스 브론슨(Charles Bronson)은 불교에 귀의한 후 180도 다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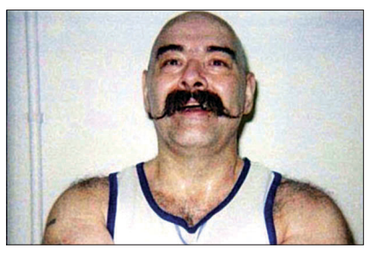
찰스는 1974년 무장 강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3년 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20명의 교도관을 폭행하고 11번의 인질극을 벌이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런 그가 교도소에서 불교를 접한 후 교도관과 동료들에게 사과를 하는 '이상 행동(?)'을 나타낸 것.

동료 수감생 코 더햄(Co Durham · 65) 씨는 "찰스는 평화를 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다"며 "그는 스스로 불교를 공부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불교를 신중히 전파한다. 그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찰스는 산산조각 났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폭력'을 완전히 버렸다"고 웃어보였다.

그에 따르면 찰스는 불교에 따라 육식도 끊고 채식주의자로 거듭났다. 이와 관련 '데일리스타'는 소식통을 인용, "찰스가 동물의 죽음에 사람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육식을 중단했다. 그는 채식주의자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의 불교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은 '날개가 달린 달걀'을 표현했는데, '육식 금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에 귀의한 후 180도 다른 수감생활을 해 화제가 된 죄수 찰스 브론슨(Charles Bronson). 사진출처=데일리스타

천지운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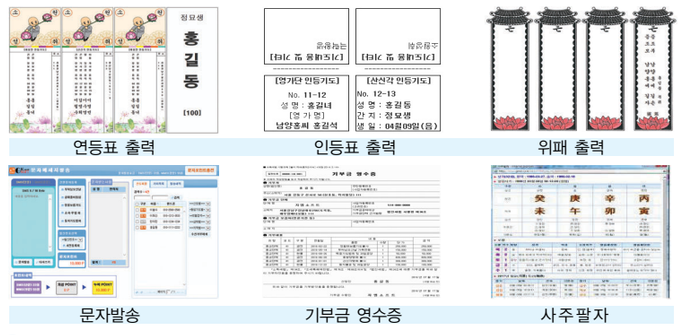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